



이영희 | 초록미당영농조합 대표이사
(dyfarm@hanmail.net)

자원식물 벌개미취

1. 머리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산을 오르거나 들판을 달리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국화와 식물들이다. 들국화라고 불리는 식물을 살펴보면 산국·감국·개미취·쑥부쟁이 등을 지칭하며 어느 식물을 한정하여 부르지 않고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보는 이마다 모두 들국화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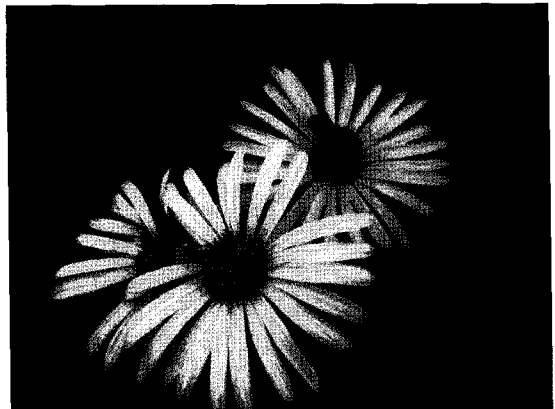
바쁜 일상을 마치고 하천변 산책로를 걷노라면, 어느 하천이든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벌개미취이다. 벌개미취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다른 나라의 산하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로 나물로 이용이 가능하여 조선자원(朝鮮紫苑)이라고도 부르며 북한에서는 벌개미취라고도 부른다. 일부 지방에서는 고려 쑥부쟁이라고도 한다. 하천변 습지에 가장 잘 자라는 벌개미취는 뿌리줄기로 번식하여 하천변 토양유실을 방지해주며 미관 향상을 위한 꽃도 피는 일석이조의 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벌개미취는 보라색의 꽃이 피며 흰색꽃의 벌개미취는 특허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다. 하천

변이나 제방녹화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좋으며, 개화기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이며 한 수종으로 2가지 꽃색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본문

- ▶ 벌개미취
- ▶ Aster Koraiensis Nakai
- ▶ 조선자원(朝鮮紫苑), 벌개미취



(그림 1) 벌개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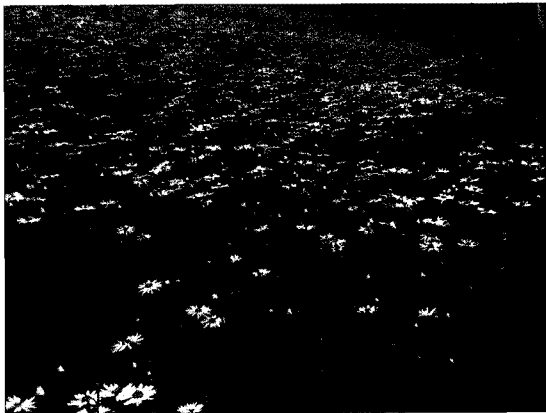


〈그림 2〉 흰 벌개미취(품종:순수)

※ 흰 벌개미취는 특허식물로 조남청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쉽게 구입이 가능



〈그림 3〉 벌개미취 군락



〈그림 4〉 흰 벌개미취 군락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과 들의 습기 있는 풀숲에서 자란다. 근래에는 중부 이남 곳곳에서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식물체

높이는 50~60cm이다. 뿌리줄기(근경)는 굵고 옆으로 뻗으며 잔뿌리가 많이 있다. 줄기는 곧게 자라며 딱딱한 나무질이고 윗부분에서 가지를 뻗으며 털이 거의 없다. 뿌리잎(근생엽)은 모여 나며 꽃이 피기 전에 곧 말라 없어진다. 잎몸(엽신)은 넓은 버들잎모양(길이 20cm, 너비 3cm)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때로 얇은 톱니가 있으며 끝부분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췌기모양이다. 줄기잎은 어긋나게 붙으며 버들잎모양(길이 12~19cm, 너비 1.5~3cm)이고 끝부분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점차 좁아져서 췌기모양으로 되고 잎자루는 짧거나 거의 없다. 잎 가장자리에는 잔톱니가 있고 짧은 가시털이 있다. 잎 표면은 녹색이고 털이 거의 없거나 드물게 있으며 뒷면은 약간 연한 녹색이고 짧은 가시털이 있다. 줄기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잎은 점차 작아진다. 머리모양꽃차례(두상화서, 꽃이 피었을 때 지름 4~5cm)는 줄기나 가지 끝에서 1개씩 붙는다. 모인꽃싸개잎(총포)은 거꿀고깔모양(길이 8mm, 너비 13mm)이며 곧게 선다. 모인꽃싸개잎쪽(총포편)은 4줄이 기와지붕이 은모양(복와상)으로 붙으며 끝은 둔하고 가장자리는 얇고 투명한 반투명질(막질)로 되어있으며 짧은 흰털이 있다. 바깥쪽의 모인꽃싸개잎쪽은 버들잎모양(길이 4~5mm, 너비 1.5mm)이고 녹색이다. 6~10월에 지름 4~5cm의 연한 자주색 꽃이 피고 허모양꽃(실상화)과 통모양꽃(관상화)이 있다. 허모양꽃은 꽃차례의 가장자리에 1줄로 붙으며 암꽃이다. 꽃부리(길이 26mm, 허모양부분의 길이 22~23mm, 허모양부분의 너비 3.5~4mm)는 자주색이고 끝에는 2개의 얇은 거치가 있다. 통모양꽃은 꽃차례의 가운데에 여러 줄로 붙으며 두성꽃(양성화)이다. 꽃부리(길이 5mm, 넓은 통부분의 길이 3mm)는 황색이고 넓은 통부분의 끝은 5갈래로 얇게 갈라졌다. 꽃부리의 뒷면에는 짧은 털이 드물게 있다. 암술대(화주)는 1개이다. 암술머리(주두)는 길며 두 갈래로 갈라졌고 갈라진 조각은 허모양이며 두성꽃의 암술머리 갈라진 조각은 약간 넓고 긴 도드리 모양의 털이 있으며 암꽃의 암술머리 갈라진 조각은 약간 좁고 짧은 도드리들이 있다. 수술은 5개이다. 꽃밥은 모두 서로 마주 붙어 있으며 끝에는 창모양의 흰색 부속체가 있고 밑은 잘린모양(절형)이며 부속체가 없다. 열매는 9~10월

에 익으며 여윈 열매(수과)이고 약간 납작한 타원모양(길이 4mm, 너비 1.3mm)이며 가장자리에 2개의 모서리(능선)가 있고 털은 없다. 우산털은 거의 없으며 때로 연한 붉은 색의 짧은 털이 있다. 어린싹을 나물로 먹으며 한방에서는 식물체를 보익, 해수, 이뇨 등에 약재로 쓴다.

〈김태정 作, 한국의 야생화와 자원식물 -서울대학교출판부 발행〉

3. 맺음말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맛있는 나물도 되고 멋진 정원을 꾸미기도 하는 별개미취는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의 꽃이다. 아직도 우리의 산하에는 우리가 모르는 식물이 많이 있고 이 식물들은 식물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 쓰임이 있는 식물로,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나물로 이용이 되기도 하며 각자에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식물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이용하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